

익산 초미세먼지 '대폭 감소'

친환경차 보급, 500만그루 나무심기 등 결과 지난해 농도 23 $\mu\text{g}/\text{m}^3$, 2015년 대비 42% 줄어

익산시의 초미세먼지 강력 저감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최고 저감률을 보인 이번 분석 결과는 환경친화도시 선언 후 익산시가 추진해온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지역의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을 시작한 지난 2015년 이래 42%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지난해 익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 $\mu\text{g}/\text{m}^3$ 로 2019년 31 $\mu\text{g}/\text{m}^3$ 와 비교했을 때 8 $\mu\text{g}/\text{m}^3$ 가 감소했다. 이는 도내에서 최고 저감률을 기록한 것이다.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을 시작한 2015년 40 $\mu\text{g}/\text{m}^3$ 와 비교했을 때 42%(17 $\mu\text{g}/\text{m}^3$)의 감소율을 보이며 초미세먼지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씻게 되었다.

이러 초미세먼지 나쁨(36 $\mu\text{g}/\text{m}^3$ 이상)으로 나타난 일수도 55일로 2019년 289일과 비교해 234일 줄어들어 쾌적한 대기질이 조성된 날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87억원을 투자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천2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90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3대, 1톤 LPG화물차 128대 구매지원 등을 통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에 힘썼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예산 60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43대, 수소자동차 54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18대, 전기이륜차 49대 등을 지원하고 익산시 관용차량 6대를 수소자동차로 교체·구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였다.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비닐 2천258톤을 수거해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농업부산물 파쇄기 활용 비료화 사업을 166개 농가 대상으로 추진했다.

이어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633대 설치를 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33곳 설치, 영세사업장 대상 저녹스버너 2곳 설치, 방지사설 32개소 설치 등에 28억원을 지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과 친환경 CNG삼수차 운행을 통해 도로변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44만매 보급을 통해 시민 체감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 밖에도 시 중점 추진사업인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 명상숲 조성과 나무 나누어주기, 내 나무심기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으로 58만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산림청 권장 수종 중 익산시 기후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여 열섬 현상 방지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설 연휴 기간의 화재 발생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 중 3분의 1(약 32%)이 주택에서 발생돼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설 연휴 화재피해 최소화 총력

익산소방서, 32% 주택서 발생... 특별 근무 돌입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설 연휴 기간의 화재 발생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 중 3분의 1(약 32%)이 주택에서 발생돼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에 화재는 총 22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7건(31.8%), 차량화재 3건(13.6%), 기타가 9건(40.9%)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 간 소규모 숙박시설과 주택 등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54.5%(12건), 전기적요인 1.3%(3건) 순으로 최근 5년간(설 연휴기간 포함) 전체 화재 발생 원인 비율(부주의 50.7%)과 비슷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이에 익산소방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화재 사망자 최소화'를 목표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29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운수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비상구 폐쇄와 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서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전날인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 익산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동원되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 취약대상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 가용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현안사업 발전방안 논의

임시회서 22건 안전 심의·의결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2021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35회 임시회를 갖고 민생 챙기기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서동완·김영자·설경민·김중신·신영자·송미숙 의원의 의원발의 8건과 군산시 무너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1조 4,128억 2천 7백만원 보다 11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1조 4,139억 7천 2백만원으로 27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편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향상 및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25일 1차 본회의에서는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 채택과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 배형원·김중신·정지숙·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나중대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형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2021년도 사회보장 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중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군산시 환경지킴이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송승현 익산경찰서장 취임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시민들의 애로 사항 해결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한 초동조치를 더욱 신속하고 세심하게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서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소통·화합의 직장 분위기 선도와 적극 행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는 서장이 될 것을 다짐했다.

송승현 서장은 전북 완주 출신으로 경찰대학교(87)를 졸업했다.

송 서장은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김제경찰서장,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을 역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송승현 총경이 제70대 익산경찰서장으로 25일 취임했다. 송승현 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민주와 인권을 지키는 책임 수사를 구현하기 위해 수사 주체로서 민주적 역량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